



‘여성 존중받는 인천’ 퍼포먼스
지난 7일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19년도 인천여성 신년인사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참석자들이 함께 ‘여성이 존중받는 살기좋은 인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인천시

지방세 체납 신고자에 포상금 최대 1억원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받아 수천 만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 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한우·한과 등 선물세트 할인 받으세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기해년 첫 명절, 설을 맞이해 1월 8일부터 29일까지 우체국 쇼핑몰 내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 인증상품 특별관’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잣, 한과, 한우, 김, 멸치 등 실속 있는 선물세트를 최대 15%까지 할인판매하고, G마크관의 만 원 이상 상품들에 가격대별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상품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황금돼지 할인쿠폰 이벤트’를 선착순 진행한다.
또 3만원 이상 구매고객이 상품평을 작

성하면 자동추첨을 통해 양평 다물농산 한과 700g을 총 100명에게 지급한다.
아울러 경인지방우정청에서도 다량 구매자들을 위해 경기농산물을 1회 10건 이상 구매고객에게 자동 추첨을 통해 모두 500명에게 만 원 할인쿠폰을 선물한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관계자는 “풍성한 민족 최대명절 설을 위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소중한 지인들에게 경기도 지사가 품질과 안정성을 인증한 G마크 우수 농산물을 따뜻한 안부와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오늘의 날씨
1월 9일 (수)
음력: 12월 4일
수도권 날씨 -10~-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6/-1, 동두천 -12/1, 가평 -14/0, 파주 -14/-1, 서울 -10/-2, 양평 -13/1, 수원 -8/-1, 용인 -8/-1, 평택 -13/1, 백령도 -5/-1

전남 ‘지역출신’ 인재 채용에 민간기업 100여곳 적극 동참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추진 신규인력 채용 70% 지역인재로 참여·목표달성 기업에 인센티브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추진 신규인력 채용 70% 지역인재로 참여·목표달성 기업에 인센티브
주로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지역인재 채용에 전남 도내 민간기업들도 참여한다.
지역 민간기업 100여곳이 지역 고교·대학교 출신 인재의 채용 비율을 약속하고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지역인재 고용 창출과 인력유출방지를 위해 ‘민간기업 지역인재 채용 목표 관리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도내 민간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채

용인원의 7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이를 통해 전체 고용인원의 70% 이상을 지역인재로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 소재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자들이 대상이며 대상기업은 도내 제조업체 기준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들이다.
나주 혁신도시 공기업들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정해 적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는 도내 50인 이상 근무 제조업체 303곳 중 참여 민간기업 100곳을 지난해 12월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했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 관리제 참여기업 중 신규채용 인원과 전체 고용인원의 7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기업 100개 업체 중 목표 달성기업

10곳을 연말에 선정하고 내년에 10곳, 2012년 15곳 2022년 15곳 등 총 50개 기업을 목표 달성기업으로 뽑을 계획이다.
목표 달성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체 임직원 후생복지 지원비로 1인당 10만원씩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도시사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경영안정자금도 우선 지원해주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역인재 채용 목표 관리제를 20~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지역 고용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2억원의 별도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목표 관리제 적용 가능 업체별로 올해 신규 고용계획을 파악 중이다”며 “목표 관리제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양수년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전남교육청, 작은학교 살리기 나선다

유관기관과 중장기 계획 논의 진행 활성화 전략 등 4개 추진과제 제시

전남교육청이 2019년 새해를 맞아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작은학교 살리기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유관기관과 농어촌 교육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를 갖고 ‘작은학교 살리기 중장기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작은학교 살리기 중장기 계획에서는 ‘행복한 작은학교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비전으로,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작은학교’를 목표로 설정해 4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4가지 추진과제는 ▲자발적·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작은학교 교육과정



전남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특성화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다.
도교육청은 이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별 실천방안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추진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작은학교 살리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으로 구성된 TF를 3개월 동안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였다.
이기봉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작은학교 살리기 중장기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마을과 학교가 함께 상생하고, ‘떠나지 않는 학교’를 뛰어넘어 ‘찾아오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bcy2020@

전국 이마트 매장 147곳에 완도 매생이 판매장 개설

완도군은 매생이 생산 어민을 돕기 위한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오는 13일까지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 147개 전국 매장에서 ‘완도 웰빙 매생이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 목표는 1만3000 상자.
매생이는 조류가 완만하고 물이 잘 드러나며 청정한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무공해’ 식품의 대표로 청정바다수도 완도에서 전국 70%가량 생산되고 있다.
특히 비타민 A와 C, 칼슘, 칼륨이 풍부하고 우유보다 40배나 많은 철분이 함유되어 빈혈 개선에 도움이 되며,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숙취 해소에도 탁월하다.
완도군 관계자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 및 인근 시·군의 매생이 양식어가 증가로 인해 매생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해 매생이의 효능을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이재진 기자 wando1106@

경기도, 도로정비 최우수 기관 선정

경기도가 ‘도로정비’ 최우수 기관의 명성을 거머쥐며, 전국도로행정모범 지자체로서 우뚝 서게 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8년도 도로정비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로정비평가’는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봄과 가을 2회

에 걸쳐 도로의 정비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평가해 시상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이번에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터널통합관리시스템,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비탈면 관리시스템 등 과학적인 도로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호평을 얻었다.
/경기=김승열 기자

광주시, 횡단보도 1000곳 LED조명 설치

광주광역시 광안로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무단횡단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1000곳에 LED조명을 추가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LED조명 추가 설치 사업은 가로 등 조명효율이 저하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 횡단보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운전자의 인지력을 향상시키고 교통안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
올해는 오는 2월부터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총 15억원을 투입해 300곳의 횡단보도에 교통신호등과 LED가로등, 도로표지판 등이 하나의 지주로 결합된 ‘통합 가로시설물’을 설치한다.
/광주=봉채영 기자